

# ‘검열 테러 시대’의 검열: 비상검열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용 환\*

- 목차 » I. 서 론  
II. 1848년 유럽혁명과 러시아 검열  
III. 비상검열위원회  
IV. 검열체제의 변화와 특성  
V. 결 론

## 국문요약

이 글은 니콜라이 1세 통치 말기 7여 년(1848-1855)의 검열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니콜라이 1세의 치세에는 검열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황제 자신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 결정되었다. 그는 스스로 제국의 최고 검열관이자 ‘검열관들의 검열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검열테러시대’로 지칭될 만큼 엄격한 검열체제가 확립되었다. 검열체제의 강화는 1840년대 말 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적 사건들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과 검열관의 자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경향 속에 이루어졌다. 통상적인 공식 검열과는 별개로 그 어떤 법률의 틀에도 제한받지 않는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검열이 언론출판을 억압했다. 특히, 1848년 4월 2일 설립된 부투를린위원회는 니콜라이 1세가 사망하는 1855년까지 검열체제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상검열위원회의 등장은 기존의 사전검열제와 ‘검열에 대한 검열’의 사후징벌적 검열체가 병행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교육부 관할의 검열을 통한 저작도 비상검열위원회의 검열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검열에 대한 검열’은 언론출판계 뿐만 아니라 기존 검열체제 안의 검열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검열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다. 니콜라이 1세가 의도한 이러한 검열의 순환구조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제 관계에서 러시아의 낙후성이 지속되게 만들었으며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은 결국 크림전쟁에서의 패배와 니콜라이 1세 사망을 계기로 러시아를 대개혁의 노정에 서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강사.

## I. 서론

‘전제의 절정(Апогей сомодержавия)’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니콜라이 1세의 치세는 ‘반동과 정체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데카브리스트 난을 겪으며 제위에 오른 그는 국가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보다 ‘진전된 관료화’를 통해 국가체제를 완성하고자 했다. 그가 의도한 ‘진전된 관료화’는 기존 통치기구가 아닌 자신의 직접적이고 완벽한 통제에 의해 정책을 실현하는 특별 기구를 통한 것이었다.<sup>2)</sup> 이를 위해 1826년에 설립된 니콜라이 1세의 황제원(Собственная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Величества канцелярия)은 기존의 관료제도와 법의 공식적인 범주 밖에 있었다. 특히, 제3부는 황제직속의 감찰기구로서 신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고, 체제 전복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했다.<sup>3)</sup> 대외정치에 있어서도 니콜라이 1세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물리력의 행사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니콜라이 1세 치세의 러시아는 군국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심화되었다. 역사가 프레스냐코프(А.Е. Пресняков)는 최고통치자로서 니콜라이 1세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니콜라이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에 따른 통치를 전제군주의 참된 의무로 간주했다. 국가중대사나 개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모두 자신의 판단과 기분에 좌우되었다.”<sup>4)</sup> 특히 검열의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했다. 니콜라이 1세는 제국의 최고 검열관이자 검열관들의 검열관(цензор цензоров)으로서 검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했다.

1) 이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러시아 통사나 니콜라이 1세에 관한 연구들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음의 논저 참조. В.Ф. Блохин, *История в портрета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Брянск, 1995), с. 32-50; Я. Гордин, *Николай I без ретуши* (СПб., 2013), с. 343-376; В.О. Ключевский,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Полный Курс Лекций* том 3 (М., 1993), с. 432-433; ЛВ. Кошман (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9-20 вв* (М., 2003), с. 158-219; А.А. Левандовский, *Ключ к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М., 1995), с. 53-62; С.В. Мироненко, “Николай I,” *Российские самодержцы* (М., 1994), с. 155-156; В.И. Моряк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М., 2005), с. 206-216; В.А. Федор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и 19-начало 20 вв* (М., 1998), с. 128-182; J. Lawrence, *A History of Russia* (New York: Meridian, 1993), pp. 179-188; N. V. Riasanovsky, M. D. Steinberg, *A History of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301-307.

2) Левандовский, Указ. соч. с. 55.

3) 황제원 제1부는 칙령 작성 및 집행 감독, 보고서 및 청원 상신, 제2부는 법전편찬, 제4부는 여성교육, 보호시설, 보건 등 복지, 제5부는 국가 농민 관리, 제6부는 캅카스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을 담당했다. 제4부는 1828년, 제5부는 1836년, 제6부는 1842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제5부와 6부는 임시기구였다. С. Шумов, А. Андреев, *История спецслужб России* (М., 2004), с. 352-365.

4) Г.В. Жирков, *История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19-20 вв* (М., 2001), с. 68.

1848년 1월 이탈리아에서의 민중봉기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산되어간 유럽혁명은 니콜라이 1세의 통치기조를 더욱 반동적으로 몰고 갔다. 혁명의 성패를 떠나서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들이 유포되었다. 니콜라이 1세는 불온한 사상에 러시아가 ‘감염’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외적으로 그는 1848년 몰다비아, 루마니아 등지의 반란을 진압했고, 1849년 헝가리 독립을 분쇄했다. 대내적으로는 신민의 사상과 생활에 대한 통제 강화에 더한층 주력했다.<sup>5)</sup>

1848년 유럽혁명 발발 이후부터 1855년 니콜라이 1세 사망까지의 이 시기는 러시아 역사에서 통상 ‘검열테러시대(Эпоха цензурного террора)’로 규정되고 있다.<sup>6)</sup> 다수의 저작을 통해 확인되는 이 시대에 대한 규정은 당대의 국가검열이 상당한 수준에서 사회 전반을 통제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sup>7)</sup>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점에서 국가의 검열활동이 ‘테러’로 인식되었으며, 왜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논문은 1848년부터 1855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러시아 검열의 특성과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1848년 유럽혁명으로 촉발된 체제붕괴에 대한 니콜라이 1세와 전제정부의

- 
- 5) 1848년 유럽혁명 및 이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각주1)과 함께 다음의 논저 참조. A.C. Нифонтов, *1848 год 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40-х годов* (M., 1931); P. Gay, R. K. Webb, *Morden Europe Since 1815*, 박무성 역, 『서양최근세사』 (서울: 법문사, 1988), pp. 217-258; Frédéric Delouchet(ed.), *Histoire de l'Europe*, 윤승준 역, 『새 유럽의 역사』 (서울: 까치, 2005), pp. 318-319; W. J. Mommsen, *1848, Die Ungewollte Revolution*, 최호근 역, 『원치 않은 혁명 1848』 (서울: 푸른역사, 2006).
- 6) 러시아사에서 통용되고 있는 ‘검열테러시대’라는 용어는 언론사가인 렘케가 자신의 저서에서 최초로 규정한 바 있다. M.K. Лемке,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и журналистики XIX столетия* (СПб., 1904), с. 185.
- 7)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성과들은 공통적으로 통사적인 틀에서 러시아 언론 및 검열의 역사의 정리하고 있다. 20세기 초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렘케, 스카비첵스키, 엔겔가르트는 다양한 1차 사료들을 활용해 문학과 언론에 대한 검열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검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이 저서들에서 저자들의 관심은 사료의 의미보다 진보적 사상과 전제 간의 투쟁 자체에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경향은 이들이 전제체제 하의 언론출판계에서 몸소 겪었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이 발굴한 1차 사료들은 후행연구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러시아의 검열 문제에 천착해 온 지르코프의 저서는 17세기부터 현대까지 러시아검열의 역사를 풍부한 참고문헌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영어권 연구성과 중 루드의 저서는 1804년부터 1906년까지 러시아 언론과 검열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으며, 출단의 경우 특히, 제정러시아의 외국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고찰하고 있다.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Лемке, Указ. соч.; А.М. Скабичевский,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1700-1863)* (СПб., 1903); Н. Энгельгардт,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1703-1903)* (СПб., 1904); M. T. Choldin, *A Fence around the Empire. Russian Censorship of Western Ideas under the Tsa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J. W. Daly, *Autocracy under Siege*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8); Ch. A. Ruud, *Fighting Words: Imperial Censorship and the Russian Press, 1804-19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우려는 국가검열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다. 지르코프(Г.В. Жирков)나 루드(Charles A. Ruud)가 주장한 바처럼, 외부요인으로 인한 내부적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검열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체제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sup>8)</sup> 이른바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조직의 특성, 그리고 실제 검열의 사례들을 살핌으로써 전제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비상검열위원회에 관한 정부공식문서, 당시 언론출판 및 검열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 관련된 다수의 사료들을 검토했다.<sup>9)</sup>

## II. 1848년 유럽혁명과 러시아 검열

1848년에서 1849년까지 연쇄적으로 발발한 유럽에서의 혁명적 사건들이 러시아 국내 정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당대의 시인이자 논객인 튄체프(Ф.И. Тютчев)는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848년은 지진과도 같았다. 물론 뒤흔들린 건물들이 모두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도 붕괴의 위협을 내포한 채 부단한 균열을 내보였다.<sup>10)</sup>

유럽혁명은 러시아 지배층에 내재되어 왔던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 변환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전 통치기 동안 잠재적 혹은 가상적 위협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니콜라이 1세에게 지극히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했다고 한다면, 1848년 혁명 이후에 그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니콜라이 1세의 긴박한 상황인식은 당시 러시아에 주재했던 한 유럽 외교관의 시각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러시아 사정에 정통했던 프로이센 대사 로호프

8)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84-99; Choldin, Ibid., pp. 83-96. 특히, 필자는 니콜라이1세가 지향한 ‘검열의 정상화’, 다시 말해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과 검열관 자질 향상이 러시아 내의 혁명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지르코프의 주장에 주목한다.

9) 이 사료들은 러시아연방 국립문서고(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109. 황제원 제3부(Третье Отдел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й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Величества Канцелярии 1826-1880)에 분류되어 있는 위원회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문서들, 검열과 언론출판 활동에 참여한 인사들과 관련된 잡지 및 신문기사, 회고, 일기 등을 포함한다.

10) К.Ф. Пигарев, “Тютчев и проблем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 19/21 (1935), с. 195.

(Т.Г. фон Рохов)는 “공식적인 보고에 대한 니콜라이 1세의 신뢰가 약해지고, 언론은 사회를 동요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러시아인들은 국내정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sup>11)</sup> 그는 “1848년 2월 혁명 이전에 황제는 여전히 정치적 폭풍을 견뎌낼 것으로 믿었지만, 굳건하게 결합된 인민 계층 내에서 치명적인 반대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sup>12)</sup>라며 서구 이념의 침투에 직면한 니콜라이 1세의 우려를 강조했다. 1848년 3월 22일 그는 내부적인 반대세력과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을 니콜라이 1세와 논의했다.

황제는 “전 국가를 장악했던 심각한 정치적 병폐를 잊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제국은 유해사상의 감염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 더욱이 언론인들에 대한 통제가 너무나 허술하다. <...> 최근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검열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 자유애호주의자들과 폭동참가자들의 선전선동을 허용하지 않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sup>13)</sup>

투스체바(А.Ф. Тютчева)의 저서에 따르면 “새로운 이념의 조류 속에 유럽의 각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생겨났다. 니콜라이 1세에게 이것은 극복해내야 할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이단의 세계였다.”<sup>14)</sup> 게르첸(А.И. Герцен)이 “1848년 혁명 이후에 니콜라이 1세는 검열의 ‘마니아(мания)’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은 검열에 할당되었다.<sup>15)</sup> 작가이자 발행인 조토프(В.Р. Зотов)는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정부의 검열 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정치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가진 우리의 신문들은 수일동안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 아이들에게 적절치 않은 질문을 금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 검열이 언론에 강요한 ‘사실에 대한 침묵’은 모든 이를 격분케 했다.<sup>16)</sup>

11) 1848-1849년에 걸쳐 작성된 이 보수적 관료의 공식 보고서에는 혁명과 입헌체제에 대한 증오가 표출되어 있다. Г. Беккер, “Оппози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в 1848 г. (по донесениям прус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 1 (1968), с. 69-75.

12) Там же, с. 70.

13) Там же, с. 71.

14) А.Ф. Тютчева, *При дворе двух императоров. Воспоминания. Дневник* (Тула, 1990), с. 43-44.

15) А.И. Герцен, *Полн. собр. соч.* В 30 т. том. 7 (М., 1958), с. 307.

16) В.Р. Зотов, “Петербург в 40-х годах,”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 5 (1890), с. 307.

유럽혁명의 여파로 니콜라이 1세를 비롯한 지배층 내에서는 체제전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검열이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간주한 전제정부는 혁명과 관련한 정보들이 러시아 국내에 유포되는 것을 막는데 전력했다. 혁명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제가 기존의 검열체제 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황제 측근들을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검열방안들이 강구되었다.

예컨대, 전(前) 모스크바 교육관구 감독관 스트로가노프(С.Г. Строганов)와 국무위원(чл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코르프(М.А. Корф)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검열 방안을 작성했다. 이 안들은 대공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의 사전 검토 후 황제에게 상신되었다.<sup>17)</sup> 프랑스 혁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1848년 2월 23일 저녁에 개최된 정부 대책회의에서 코르프는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sup>18)</sup>

러시아 신문들이 하급 관리, 도처의 여관들과 농노들에게 뿌려져 수십만의 독자들에게 의해 읽히고 있다. 따라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언론에 즉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무엇을 위해 구멍가게 점원이나 농노들이 파리에서 불에 탄 왕좌가 창문 밖으로 내던져진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sup>19)</sup>

이와 함께 그는 검열관 증원, 검열기준 강화, 정치 관련 보도 제한, 불온매체에 대한 발행금지 등을 제안했다.<sup>20)</sup>

제3부의 수장 오를로프(А.Ф. Орлов)<sup>21)</sup>도 두 개의 무기명 보고서를 니콜라이 1세에게 전했다. 이 보고서는 검열 기준의 정확한 적용과 검열관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1848년 3월 6일에는 헌병대장 바실레

17) Лемке, Указ. соч., с. 190-194. ; И.В. Ружницкая, “Корф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оссии,”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 2 (1998), с. 56-62; Нифонтов, Указ. соч., с. 48-49.

18) М.А. Корф, “Записки,”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3 (1900), с. 571-572.

19) “Записка ст. - секретаря М.А. Корфа наследнику цесаревичу.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с. 220.

20) Там же.

21) 오를로프는 1844년 벤켄도르프의 후임으로 제3부의 수장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두벨트(Л.В. Дубельт)에게 대부분 위임했다. 두벨트는 1826년부터 1844년까지 제3부를 관장했던 벤켄도르프에 의해 헌병대에 등용된 후 그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Колпакиди А., Север А. *Спецслужб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2010. с. 137-142.

22) 니폰토프(А.С. Нифонтов)와 렘케(М.К. Лемке)는 위원회 설립의 중요한 제창자로 오를로프를 거론한다. М.К. Лемке, *Николаевские жандармы и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826-1835* (СПб., 1909), с. 177;

프(A.V. Васильев)의 보고서 “러시아와 외국 신문들의 경향에 대해”<sup>23)</sup>가 오흐로프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하! 러시아 신문들은 상류계층에서는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 러시아 신문들은 농민뿐만 아니라 시장, 음식점, 사무실 등에서 심부름꾼, 상인들에 의해 읽히고 있습니다. <.> 사상이 불온한 자들은 문맹의 인민들에게 폭동을 위해 필요한 것만을 가르칠 것입니다. <.> 우리 검열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기사에 대한 감독을 유능한 관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sup>24)</sup>

이외에도 치치아노프(Л.В. Цицианов)의 검열에 대한 방대한 계획안이 제3부에 제출되었다. 그는 모든 출판물의 예외 없는 검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열 재원 확보를 위한 출판세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번역도서의 경우 검열시 장당 10 코페이카짜리 특별용지에 50행 미만으로 쓴 원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출판세와 특별용지대로 인한 출판비용의 상승은 잠재적 발행인들을 차단하는 수단이었다.<sup>25)</sup>

스카비첵스키(А.М. Скабичевский)의 견해로는 당시 황제에게 상신된 다수의 검열방안 중 제국아카데미 정회원 바젠프스키(П.А. Вяземский)의안이 새로운 검열체제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26)</sup> 바젠프스키는 어떠한 경향 속에 정부가 활동해야할지 뿐만 아니라 검열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권을 가진 특별검열기구 설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바젠프스키는 검열을 “출판을 매개로 작동하는 사상과 지식에 대한 경찰”이라고 간주하며 “우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검열은 국가 안보를 동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타의 정부 부처에 귀속되지 않은 황제 직속의 특별검열기구 설립을 주장하며 그 모형을 제시했다.<sup>27)</sup>

Нифонтов, Указ. соч., с. 181.

23)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함께 실은 보고서는 21쪽에 달한다. 코르프와 바실레프 보고서의 유사성을 놓고 볼 때 바실레프가 사전에 코르프로부터 근거 자료와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발췌 기사의 방대한 양은 프랑스에서의 혁명 발발 이후 발행된 신문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음을 증명한다.

24)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25. Ч. 4. Л. 23. 이 보고서 말미에는 “이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오흐로프의 의견이 필사로 남아있다.

25)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363. Л. 3-5.

26) Скабичевский, Указ. соч., с. 344-345.

27) М.И. Гилельсон, П.А. Вяземский.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Л., 1969), с. 322-324; В.Ю. Ледодаев, “Князь Петр Андреевич Вяземский о цензуре и литературной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8. История. № 5 (1997), с. 50-65; *Истор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о*

### Ⅲ. 비상검열위원회

유럽혁명의 발발로 촉발된 검열에 대한 보수 세력 내의 다양한 논의는 비상검열위원회의 창설로 귀결되었다. 혁명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판매체를 통한 유해사상의 전파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지배계층의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은 니콜라이 1세가 주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지배세력의 집단적인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니콜라이 1세가 임명한 소수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는 그 활동에 있어 방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sup>28)</sup> 코르프는 비상검열위원회를 “니콜라이 1세가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위해 임명한 고관들로 구성된 군주의 사적 회의”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오로지 황제의 지시와 칙령에 따라 운용되었다.<sup>29)</sup>

비상검열위원회는 1848년 2월 27일 검열을 위한 특별기구로서 ‘임시비밀위원회(Временный Секретный Комитет)’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sup>30)</sup> 교육부는 황제가 직접 쓴 칙령을 하달 받았다.

검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간행된 잡지들은 발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검열과 그 지도부, 즉 교육부의 태만과 잡지들이 어떤 점에서 규정을 벗어났는지 그 증거와 함께 위원회와 짐에게 보고하라.<sup>31)</sup>

이 칙령에서 니콜라이 1세는 교육부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검열에 대한 검열’을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비상검열위원회 활동의 근본적인 경향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정책을 위한 제안들은 제3부를 통해 니콜라이 1세에게 보고되었고, 황제의 인가를 거친 후 집행을 위해

*цензура в России* (СПб., 1862), с. 53.

28) Н.П. Ерошкин, *Крепостнические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М., 1981), с. 186-188.

29) М.А. Корф, “Император Николай Первый в совещательных собраниях,” *Сб. РИО*, том. 98 (1896), с. 123; Б.М. Кочаков, *Русск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документ 19-20 вв.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М., Л., 1937), с. 325.

30) 위원회를 이관 멘시코프의 이름을 따서 ‘멘시코프위원회’로 통칭한다.

31) Нифонтов, *Указ. соч.*, с. 233-239; Лемке,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и журналистики XIX столетия*, с. 190;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85.

교육 대신에게 하달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멘시코프(А.С. Меншиков)를 비롯해 코르프, 제국공공도서관 관장 부투를린(Д.П. Бутурлин), 제3부 수장의 최측근이자 중앙검열위원회의 상임위원 두벨트, 어전대신(стас-секретарь) 데가이(П.И. Дегай)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sup>32)</sup> “위원회의 업무를 지체 없이 개시하라!”는 칙령에 따라 1848년 3월 한 달 동안 위원회는 새로운 검열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니콜라이 1세에 의해 승인되었다.

첫째, 모든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그 발행규정을 제출하라. 둘째, 간행물에 실린 저작의 유해성이 완곡한 암시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전 경고하라. 이와 같은 저작을 통과시킨 검열관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sup>33)</sup>

이와 함께 위원회는 광고를 제외한 모든 저작의 원저자명을 밝힐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언론출판의 익명성과의 투쟁을 즉각 시작했다.

1848년 3월 25일 “잡지의 유해성에 대해, 그것이 설사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엄중한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편집인들에게 경고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위원회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멘시코프는 페테르부르크의 정기간행물 편집장들을 해군성(Адмиралтейство)으로 초치해 이 칙령을 공개했다.<sup>34)</sup> 그는 “편집인들의 의무는 혼란을 야기할 저질 기사의 게재를 거부하고,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해치는 이념들에 의한 전염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데 정부와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sup>35)</sup>

‘임시비밀위원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멘시코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니콜라이 1세가 구상한 새로운 검열체제의 시험

32) Н.К. Шильдер, *Император Николай I*, том. 2 (СПб., 1903), с. 636.

33) О.Д. Минаева, “Предложение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12 марта 1848 г.”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История надзора* (М., 2003), с. 134-135.

34) 실리데르의 저서에 따르면 이 회합은 원래 제3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를로프의 거부로 해군성에서 이루어졌다. 멘시코프는 일기에 “오를로프는 이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에 격분하여 불만을 표시했다”고 적고 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새로운 황제직속검열기구의 설립으로 인해 자신의 전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존 국가감찰기관 수장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Шильдер, *Указ*, с. 634.

35) *Сборник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о цензуре* (СПб., 1862), с. 243-244. 초청장의 초안에는 회합의 시간이 자정으로 되어있다. 니폰토프는 이것을 편집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Нифонтов, *Указ*, с. 182.

대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본격적인 비상검열위원회 체제의 가동은 ‘부투를린 위원회’로부터 시작된다.

니콜라이 1세는 1848년 4월2일 멘시코프위원회 활동을 종료함과 동시에 새로운 최고 검열 기관의 형태를 확정했다. 이것은 황제 직속의 검열에 대한 비공개 상설 감독기관으로 ‘부투를린위원회’로 지칭된다.<sup>36)</sup> 이 위원회는 설립 일을 근거로 ‘4월2일 위원회’로 불리기도 한다.<sup>37)</sup> 위원회는 니콜라이 1세가 사망하는 1855년까지 존속되었다. 출판과 검열에 대해서 황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기’를 추구했다. 니콜라이 1세가 자신의 ‘눈과 귀’로서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 인물들은 부투를린, 코르프, 데가이 등이었다. 위원장만 부투를린으로 교체되었을 뿐 이들 모두는 ‘멘시코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다.<sup>38)</sup>

‘4월2일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도덕과 정치에 대한 러시아 도서출판의 정신과 경향을 감독하는 최고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검열기관들은 그 조직과 업무를 유지했고, 위원회는 이미 실시되고 있던 사전검열과는 별개로 사후검열 및 ‘검열에 대한 검열’의 소견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 회의에서 니콜라이 1세는 위원회 창설의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 과학의 진보가 정치적 진보와 혼동되고 있고, 검열관들의 우둔함이나 검열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다수의 허용되지 않은 유해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니콜라이 1세는 우바로프(C.C. Уваров)의 관리 하에 있는 교육부의 태만을 비판한 후, “모든 검열 기관은 이전과 같이 남게 되지만 당신들은 바로 짐의 눈과 귀가 될 것이다”라며 위원들에 대한 신임을 표시했다.<sup>39)</sup> 니콜라이 1세의 구상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표와 임무는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인과 작가들에게 검열의 감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

36)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149. Л. 109-110; Шильдер, Указ. соч., с. 622-624;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комиссией дл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печати. Публикация В. Биншгок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4 (1897), с. 203-206.

37) 부투를린위원회와 관련된 사료는 제3부 문서군의 목록 <러시아 도서출판에 대한 감독을 위한 부투를린을 대표로 하는 위원회 설립에 관하여>에 분류되어 있다.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149. Л. 100-196.

38) 부투를린위원회는 존속했던 7여 년의 기간 동안 총 5명의 인사가 업무에 참여했다. 위원장의 교체에 따라 위원회 활동은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제1기(1848-1849) 부투를린(위원장), 코르프, 데가이, 제2기(1849-1855) 안넨코프(위원장), 코르프, 노르프, 제3기(1855) 코르프(위원장), 노르프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이름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이 혼선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하 본 논문에서는 부투를린위원회를 ‘4월2일 위원회’로 표기하기로 한다.

39)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149. Л. 110-112.

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전제정부는 기존 검열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재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을 검열관으로 확보하고자 했다.<sup>40)</sup>

제3부의 오를로프에게 전달된 ‘4월2일 위원회’의 훈령에는 새로운 검열체제에 대한 황제의 의지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훈령은 ‘4월2일 위원회’의 비공식적 성격을 설명하며, 위원회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 것을 교시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에 국내 출판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의 전권과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전 부처는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고 각 부처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인쇄시설의 간행물과 그 목록을 매월 제국공공도서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sup>41)</sup> 이 문서는 위원회가 독자적인 정책집행권을 가지지 못했으나 러시아 국내의 모든 인쇄시설과 저작물에 대한 감독권과 조사권을 보유한 당대 최고검열기관임을 증명해 준다.

‘4월2일 위원회’는 이처럼 니콜라이 1세에 의해 부여된 전권을 가지고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엄격하게 감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통치 행위, 정책, 지시에 대한 비난’, ‘현행법에 대한 비판’, ‘금지된 외국 도서와 저작에 대한 불온한 비평’, ‘교회 전승을 부정하고 정교 신앙을 동요시키는 견해’, ‘유럽 국가들의 대의제, 헌법, 선거, 입법의회, 국민의 자유, 노동자쟁의, 대학생 집회 등에 대한 저작’, ‘반란, 폭동 등에 관한 역사 논문’, ‘농노제에 대한 비판, 계급 간 갈등을 야기하는 저작’ 등의 출판과 유통을 금지했다.<sup>42)</sup>

#### IV. 검열체제의 변화와 특성

1840년대 말 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적 사건들에서 기인한 새로운 검열체제는 ‘황제 직속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과 검열관들의 자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경향 속에 조성되었다. 통상적인 공식검열과는 별도로 그 어떤 법률의 틀에도 제한받지 않는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검열이 언론출판을 억압했다. 이 장에

40)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149. Л. 110 об.

41)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149. Л. 111 об.

42)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89-90.

서는 비상검열위원회 체제 하에서의 검열 사례와 검열관들의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된 검열의 특성을 파악한다.

## 1. 비상검열위원회의 검열

멘시코프위원회의 활동은 잡지 <조국수기(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동시대인(Современник)>과 작가 살티코프-셰드린(М.Е. Салтыков-Щедрин)에 대한 제재 사례를 통해 그 일면을 접할 수 있다. 제3부의 실권자 두벨트는 지인의 권고로 <조국수기>, <동시대인>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위원회에 제안했다.<sup>43)</sup> 이들 잡지에 대한 검열과정에서 위원회는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획책하는 사상, 유럽을 혼란에 빠트린 바로 그 사상을 탐지해 내었다. 위원회는 잡지의 편집인 크라엡스키(А.А. Краевский)와 니키펜코(А.В. Никитенко)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다.<sup>44)</sup> 검열의 처벌 통보를 받은 크라엡스키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는 정부의 환심을 살 만한 애국주의적인 저작 “오늘날의 러시아와 유럽”의 게재 승인을 제3부에 청원하고 이를 <조국수기>에 연재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적 건전성을 증명하고자 했다.<sup>45)</sup>

살티코프-셰드린에 대한 검열 사례는 제국아카데미회원인 경제학자 베셀롭스키(К.С. Веселовский)의 회상록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sup>46)</sup> 위원회의 데가이는 <조국수기>에 대한 검열 과정에서 잡지에 게재된 살티코프-셰드린의 중편 “헝클어진 사건(Запутанное дело)”에 주목했다. 멘시코프위원회는 보고서 “잡지들의 유해한 경향에 대해”에서 이 작품의 불온성을 강조하며 작가에 대한 처벌 소견을 상신했다. 이 사안의 조사는 육군부에 배정되었다. 육군대신 체르니쇼프(А.И. Чернышёв)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로 쿠콜리니크(Н.В. Кукольник)를 임명했다. 멘시코프위원회가 해체되고 ‘4월2일 위원회’가 신설되는 와중에도 계속된 이 사안의 조사와 관련해 쿠콜리니크는 다음과 같이 일기에 적고 있다.

43) Лемже, Указ. соч., с. 197. 이하 각각의 잡지명은 <조국수기>와 <동시대인>으로 표기한다.

44)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4. (1913), с. 219. 3월 29일자 멘시코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불온한 두 매체에 대한 검열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5) “Россия и Европа в настоящую минуту,”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том. 59. Отд. 3 (1848), с. 20; Лемже, Указ. соч., с. 194.

46) К.С. Веселовский, “Отголоски старой памяти,”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0 (1899), с. 13-19.

4월 22일. 체르니쇼프를 방문했다. 그는 무척 혼란스러워 했고 몹시 화가 나있었다. 그는 “살티코프-셰드린을 교화시켜야지. 그 작자를 병사로 캅카스의 군대에 처넣어 버리겠어”라고 말했다.

4월 25일. 체르니쇼프는 완고하다. 그는 조사위원회에 격노했고... 관대한 처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살티코프-셰드린은 짧은 기간 수감된 후에 4월 28일 니콜라이 1세의 최종결정에 의해 바트카(Вятка)로 추방되었다.<sup>47)</sup>

1848년 3월 모스크바 총독(генерал губернатор) 세르바토프(А.Г. Щербатов)는 일부 신문에 반란을 신동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부에 보고했다.<sup>48)</sup> 이와 관련한 제3부 회의에서 최고문관(канцлер) 네셀로데(К.В. Нессельроде)는 “세르바토프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문들이 해외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이 인식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통보(Московские ведомости)>가 신민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혼란을 구체적이고 식렬하게 기술하고, 더 나아가 폭동의 음모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수단들까지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왔다”고 보고했다.<sup>49)</sup> 그러나 이후에 상신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 총독의 언론통제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불온한 사상을 유포하는 페테르부르크의 신문과 잡지들로부터 기인한 악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50)</sup> 이를 접한 니콜라이 1세는 “향후 반란, 폭동, 혁명에 대한 저작과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모든 간행물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sup>51)</sup> 당대의 검열상황에 대해 니키펀코는 “공포가 모든 사상가와 작가들을 지배했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매일을 경계하기 시작했다”<sup>52)</sup>고 토로했다.

언론출판에 대한 엄혹한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는 니콜라이 1세의 의지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내무대신 페롭스키(Л.А. Перовский)는 “만약 정부가 정책수행자들의 활동을 간단없이 감독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고 확실한 집행

47) Н.В. Кукольник,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том. 45, № 7, с. 79-99. 바트카는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90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 명칭은 키로프(Киров)다.

48)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25. Ч. 4. Л. 23.

49) Там же. Оп. 23. Д. 25. Ч. 4. Л. 24.

50) Там же. Оп. 23. Д. 25. Ч. 4. Л. 26.

51) Там же. Оп. 23. Д. 25. Ч. 4. Л. 26(об).

52) Никитенко А.В. Указ. соч. с. 311-312.

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간주했다.<sup>53)</sup> 전제정부의 대표적인 관료 중 한명인 발루예프(П.А. Валуев)도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정부의 고유한 수단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에서 찾았다.<sup>54)</sup> 니콜라이 1세는 정부의 고유한 수단인 검열에 대한 확신으로 새로운 비상검열위원회를 통해 더 한층 강화된 ‘정신적 제방’을 쌓고자 했다.

임시기구로서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된 멘시코프위원회의 활동은 1848년 4월2일부터 ‘4월2일 위원회’로 계승되었다. 사후검열과 ‘검열에 대한 검열’의 기조는 ‘4월2일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검토를 위한 간행물들은 위원들에게 배분되었다.<sup>55)</sup> 위원회가 수행한 구체적인 검열의 내역은 매월 10일 제작된 ‘특별 통보’에 게재되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명한 ‘특별 통보’를 니콜라이 1세에게 상신했다. 이 내용은 니콜라이 1세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부처에 하달되었고, 황제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되었다.<sup>56)</sup> ‘4월2일 위원회’의 업무 개시 후 니콜라이 1세는 “언론인들 위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은 아마도 유익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sup>57)</sup>라는 코르프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4월2일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했다.

‘4월2일 위원회’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혁명사상의 색출과 통제에 집중되었다. 베셀롭스키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유럽 혁명 초기에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러시아에서 무언가 위험하고,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표식과 같은 공포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덜 이해할수록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sup>58)</sup>

위원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유해 사상에 대한 검열에 몰두했고, 관련 저작을 출판, 보급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고안해 내었다.<sup>59)</sup>

53) П.А. Зайончковск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самодержавной России в 19 в.* (М., 1978), с. 176.

54) П.В. Валуев, “Думы русского,”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5 (1891), с. 354.

55) 예컨대, 부투를린은 잡지 <동시대인>, <조국의 아들(Сын Отечества)>, <학술원통보(Академические Ведомости)>, <러시아노약자(Русский Инвалид)>, <페테르부르크 신문(Journal de St.-Petersbourg)>를, 데가이는 <독서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для чтения)>, <북방평론(Северное обозрение)>, 국가재산부, 내무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잡지들, 그리고 신문 <농업신문(Земледельческая газета)>를, 코르프는 <조국수기>, <모스크바인(Москвитянин)>, <문학신문(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북방의 벌(Северная пчела)>, <정치신문(Полицейская газета)> 등을 검토했다.

56) Н.П. Ерошкин, *Крестьянские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М., 1981), с. 198.

57) Лемже, Указ. соч. с. 213.

58) К.С. Веселовский, “Отголоски старой памяти,”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0 (1899), с. 9-10.

1851년 2월 5일 제3부는 <데르프트 신문(Дерптская газета)> 제8호에 게재된 공산주의 관련 기사가 허가된 것인지에 대해 ‘4월2일 위원회’에 질의했다.<sup>60)</sup> 이에 대해 위원회는 “<데르프트 신문>에 대한 현지 검열기관의 검열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 우리는 제3부보다 조금 늦은 2월 6일에서야 <데르프트 신문> 제8호를 입수했다. 만약 직접 이 신문을 검열했다면 문제의 기사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sup>61)</sup> ‘4월2일 위원회’는 관련 검열관의 업무태만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제3부의 입장에 동조했고, 오스트제이스키 크라이(Остзейский край)의 총독은 해당 검열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sup>62)</sup> 이 사례를 통해 검열업무에서 같은 황제직속기구로서 ‘4월2일 위원회’와 제3부 간의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제3부는 검열의 실책과 불온 간행물 및 저자에 대한 정보를 ‘4월2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4월2일 위원회’의 훈령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제3부 문서고 1851년 6월 검열 자료들에 대한 분류에는 위원회로 보내는 오스트제이스키 크라이 정부의 보고서가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민헨의 한 신문에 게재된 공산주의 관련 기사와 이 신문을 배포한 도서판매상들에게 내려진 처벌에 관한 것이다.<sup>63)</sup> 같은 해 ‘4월2일 위원회’의 주도로 정부는 부록에 공산주의 관련 기사를 게재한 <트란실반스카야 가제타(Трансильванская газета)>를 처벌했다.<sup>64)</sup>

외국정기간행물에 대한 검열에서 타국 정부와의 협조체제가 효력을 발생했다. 1851년 제3부는 바바리아의 러시아 사절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현지 경찰이 민주주의 경향의 신문 편집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러시아 정기구독자 1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다.<sup>65)</sup> 검열의 조회에 대해 체신국장 골리친(С. М. Голицын)은 “이 간행물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우체국의 신문 목록에

59) Никитенко А.В. *Дневник* том. 1 (М., 1955), с. 311; Оксман Ю.Г. “Меры николаевской цензуры против Фурьеризма и коммунизма,”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5/6 (1917), с. 69-75.

60)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25. Ч. 4. Л. 18 об. 이 사안은 <데르프트 신문>의 정치 기사에 대한 디브레니코프(Дибреников) 소령의 보고가 제3부에 접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참고로 데르프트는 현재 에스토니아의 타르투이다.

61)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25. Ч. 4. Л. 17 об., 18.

62) 크라이(край)는 ‘가장자리, 영토, 지방, 지대’ 등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단위로서 일반적으로 ‘변강(邊疆)’이나 변경주(邊境州)로 번역되고 있다. 오스트제이스키 크라이는 발트해 연안 지역으로 현재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 속해 있다.

63)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6. Д. 287. Л. 18

64) ГАРФ. Ф. 109. 1 эксп. Оп. 23. Д. 27. Л. 1-3.

65) ГАРФ. Ф. 1. Оп. 11. Д. 287. Л. 1-6.

없다. 지역의 도서관매상들을 조사해 보겠다”고 통보했다. 콜리친은 향후 도서관매상을 통한 해당 신문의 구독신청을 금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대신 시린스키-시흐마토프(П.А. Ширинский-Шихматов)는 이를 받아들여 신문의 구독 금지 결정을 제3부를 통해 니콜라이 1세에게 보고했다.<sup>66)</sup>

비상검열위원회 체제 하에서 검열은 특히 외국어로 된 문학서적에 주목했다. “외국문학작품들이 1848년 탄압조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외국출판물검열위원회 검열관 툃체프의 보고서에서 확인된다.<sup>67)</sup> 1848년 페테르부르크와 오스트제이스키 크라이 주요도시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금지도서들이 적발되었다.<sup>68)</sup> 교육부에서는 긴급히 외국도서 검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불온도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했다.<sup>69)</sup> 이에 대해 코르프는 “검열을 통해 유해사상의 침투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은 자신의 정원을 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문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sup>70)</sup> ‘대문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자 정부는 ‘새들’을 박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내부대신 페롭스키와 제3부 수장 오를로프는 유해한 외국도서를 반입 세관에서 즉시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대신 시린스키-시흐마토프가 이 방안에 찬성한 반면, 전(前) 내무대신 블루도프(Д.Н. Блудов)는 “도서소각은 매우 비판받을 조치가 될 것이다. 도서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국가에서도 유용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sup>71)</sup> 결국 도서소각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경에서 외국 간행물에 대한 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외국출판물검열(Иностранная цензура)은 외국어 저작의 번역 허가 과정에서 자주 실책을 저질렀다. 외국출판물검열에서 외국어 원작의 반입과

66) ГАРФ. Ф. 1. Оп. 11. Д. 287. Л. 1-4 об. 크라슈스키에 의해 서명된 이 간행물의 금지와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한 결정, 검열관 로데(Роде)의 보고서 등 외국출판물검열위원회 일지 1851년도 18호의 발췌문이 보존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67) М.Ф. Бриксман, “И. Тютчев в Комитете Цензуры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 19/21 (1935), с. 568. 툃체프는 1858년 외국출판물검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

68) ГАРФ. Ф. 109. 1 экзп. Оп. 23. Д. 426. Л. 8-9. “О постановлении новых правил к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ввоза в Россию иностранных запрещённых книг.”

69) А.С. Нифонтов, *1848 год 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40-х годов* (М., 1931), с. 237-238.

70) М.А. Корф, “Размышления 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и цензуры,”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особой комиссией, высочайше учреждённой 2 ноября для пересмотра действующи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цензуре и печати*, Ч. 1 (СПб., 1870), с. 99-100.

71) М.К. Лемке, “Запрещённые и сваренные книги,” *Книга и революция*, № 5 (1920), с. 74; Л.М. Добровольский, *Запрещё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1825-1904* (М., 1962), с. 8-9.

번역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러시아어 번역본이 국내출판물검열(Внутренняя цензура)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연관된 사례로 외국출판물검열을 통과한 프랑스 작가 뒤마와 코카의 소설들이 중앙검열청의 검열 과정에서는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었다.<sup>72)</sup> 중앙검열청은 외국출판물검열위원회에 “만약 저작이 선량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잘라 내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sup>73)</sup> 이와 관련해 니키텐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번역가들과 발행인들은 출판을 위해 검열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개작했다. 번역된 책 속에는 프랑스에서의 사건과 저자의 명성 외에 원작의 근간이 되는 그 어떤 요소도 남지 않았다. 검열은 저작으로부터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즙을 짜내고, 작품의 권위와 경향을 내포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모조리 쳐내고 있다. 이처럼 검열이 불온한 사상과 문명화의 산물들에 대해 단호하고 무자비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 유해한 힘을 상실하고 <...> 이미 그 어떤 위험성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sup>74)</sup>

‘4월2일 위원회’ 활동의 압권은 1851년에 실행된 <조국수기> 1841년, 1843년도 전호에 대한 판매 및 도서관 비치 금지 조치였다. 위원회는 해당 잡지에 게재된 게르첸의 저작들을 빌미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니콜라이 1세의 승인 이후 정부는 해당 잡지들을 압수하거나 비밀리에 사들였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해당 잡지들은 별도의 상자 속에 봉인된 후 열람 금지되었다.<sup>75)</sup>

이 외에도 다수의 작가와 간행물이 검열에 희생되었다. 투르게네프(И.С. Тургенев)는 고골(Н.В. Гоголь)에 대한 조사(弔詞)로 인해 1852년 자신의 오를로프 영지에 연금(軟禁)되었고, 사마린(Ю.Ф. Самарин)은 오스트제이스키 크라이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평으로 인해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감옥에 감금되었다. 1853년 3월 악사코프(И.С. Аксаков)는 <모스크바 선집(Московский сборник)>으로 인해 제3부에 체포되었고, 잡지는 금지 처분되었다.

1848년 4월 2일부터 1856년 1월 1일까지 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10,214권

72) *Сборник распоряжений и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о цензуре*. с. 276-278.

73) Брикман, Указ. соч., с. 566. 잘라내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검은 잉크로 덧칠을 했다.

74) М.К. Перкаль “Проект изменения цензурного устава,”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Вып. 16 (Саратов, 1996), с. 9-100.

75) 위원회의 정식조수였던 표도로프가 위원회의 관심을 이 저작에 돌리게 했다. “Герцен и Комитет Бугурлина,”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7-9 (1918), с. 90-93.

의 도서, 5,573권의 잡지, 56,112부의 신문, 9,116건의 석판인쇄물 등이 검열되었다. 심지어 교육지침, 정부 간행물, 대학 총장 보고서 등도 검열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들은 295권의 일지와 각 연도의 연보에 정리되었다.<sup>76)</sup>

동시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새로운 시기’의 검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폭압적이었다. “사회는 급속도로 야만시대에 빠졌다. 구원하라! 자신의 영혼을..”<sup>77)</sup> 이처럼 비통해 한 것은 니키펜코 뿐이 아니었다. 불가린(Ф.В. Булгарин)은 “시대여! 바보들이자 짐승들이자 우리는 마그니츠키(М.Л. Магницкий)와 루니치(Д.П. Рунчи)의 시대에 눈물을 흘렸다.<sup>78)</sup> 그러나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문학의 황금기였다! <...> 검열은 모든 것에 의혹의 그림자를 던지게 했고, 머리와 가슴 속에 불안과 공포를 품게 하여 사상과 감정을 절멸시켰다”고 격분했다.<sup>79)</sup> 호마코프(А.С. Хомяков)의 말처럼 검열은 전대미문의 채찍질을 가했다.<sup>80)</sup> 검열의 경향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 2. 검열관의 실상

새로운 검열체제의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검열관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다수의 사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1848년 3월 니콜라이 1세는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검열을 강화하고 검열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시오. 검열관들이 여타의 직책을 가짐으로써 검열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정기간행물의 간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법령을 제정하시오.<sup>81)</sup>

1848년 5월 5일 교육대신 우바로프는 니콜라이 1세에게 상신한 보고서 “향후 검열 제도의 주요 기반에 대해”에서 외국어와 현대문학의 조류를 알고 있는 교육받은 검열관의 등용을 강조했다. 1850년 7월 19일 검열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니콜라이 1세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최고교육기관에서

76) Ерошкин, Указ. соч., с. 200;

77) Никитенко, Указ. соч., с. 335-336; Анненков, Указ. соч., с. 503.

78) 마그니츠키와 루니치는 알렉산드르 1세 통치 후기 국가검열체제 강화에 기여했던 인물들이다.

79) “Письмо Ф. Булгарина Никитенко от 4 декабря 1848 г.”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 (1900), с. 182.

80) Федоров, Указ. соч., с. 151.

81) Жирков, Указ. соч., с. 87.

교육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술 지식을 습득한 관리만이 검열관에 등용될 수 있었다. 또한 검열관은 역사와 러시아 및 외국문학의 현대적 흐름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갖추어야 했고, 직무 수행 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었다. 검열관의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봉급수준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곤차로프(И. А. Гончаров), 토티체프, 마이코프(А.Н. Майков), 폴론스키(В.Я. Полонский) 등 상당한 수의 저명 작가들이 검열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검열관들의 직업적 자질은 증대되었다.<sup>82)</sup> 그러나 일부 동시대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검열체제 개선을 위해 재능 있고 집행력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나, 자질이 뛰어난 인물들이 권력의 우둔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고 통치자는 이해하지 못했다.”<sup>83)</sup> 실제로 검열기관의 인사에서 황제의 편애를 받은 인물은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치체린(Б. Н. Чичерин)은 자서전에서 “니콜라이 1세는 권력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권위를 실현해 나갈수록 더 많은 인간쓰레기들을 측근에 두었다”<sup>84)</sup>고 적고 있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이러한 정황은 당시 황제의 측근과 검열관들에 대한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멘시코프는 위원장 부투를린에 대해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임명된 위원회의 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일기에 썼다.<sup>85)</sup> 그러나 이후 부투를린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황제의 의지와 시대 상황을 앞세우며 비상검열위원회의 이름으로 전권을 행사했다. 1848년 10월 유럽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귀환한 문학비평가 안넨코프(П.В. Анненков)는 회고록에서 부투를린의 ‘4월2일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검열의 우경화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혁명에 대한 정부의 공포, 내부의 테러, 출판에 대한 박해, 경찰권의 강화 <...> 의심, 제한 없는 억압 조치 <...> 언론과 작가들에 대한 감찰 <...> 부투를린은 말과 사상, 자유에 대한 증오와 무한한 복종, 침묵, 규율을 전파하며 무대에 등장했다.<sup>86)</sup>

1849년 10월 부투를린이 사망한 이후 위원장에 오른 시종무관장(генерал-

82) Там же, с. 87-89.

83) Н.В. Басаргин, *Воспоминания, рассказы, статьи* (Иркутск, 1988), с. 238.

84) Б.Н. Чичерин, *Воспоминания. Русское общество в 40-х-50-х гг. 19 в.* (М., 1991), с. 110-111.

85) Шильдер, Указ. соч., с. 635.

86) П.В. Анненков, “Две зимы в провинции и в деревне.” *Анненков П.В. Литератур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М., 1989), с. 502.

адъютант) 안넨코프(Н.Н. Анненков)는 과학과 계몽에 대한 증오와 문학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그의 인식은 한 극장의 휴게실에서 자신과 동성(同姓)인 작가 안넨코프와 나눈 대화를 통해 표출된다. “왜 작가들은 문학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작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애를 쓰는지 과연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sup>87)</sup> 그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그 기초적 요구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인물이었다.

제3부 수장의 최측근이자 멘시코프위원회에 참여했던 두벨트는 공식적으로는 ‘4월2일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sup>88)</sup> 그러나 그는 제3부의 실권자로서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한 인물이다. 검열에 대한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는 검열이 없거나 가장 약하다. 벨기에도 마찬가지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체제 전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 자유, 평등, 개혁... 등과 같은 단어들의 빈번한 반복은 이성의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絃)들은 울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악(惡)을 미리 경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 차르는 아버지이며, 농민들은 그의 자식들이다.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프랑스, 이단의 프랑스가 될 것이다.<sup>89)</sup>

황제 직속 러시아 헌병기관 2인자의 이러한 견해는 모든 문제를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서구의 영향으로 인식하는 통치권의 경사된 시각과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불가린은 보수반동적 검열관들의 활동을 “말하는 수단을 뺏음으로써 생각하는 능력을 제거하려 한다. 인간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사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sup>90)</sup>

당대 검열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그 활동의 실상에 대해 다수의 기록이 남아 있다. 작가 안넨코프는 교육대신의 인사와 관련해 “우바로프는 자리 잡지 못했고, 그 자리를 우매하기 짝이 없는 시흐마토프가 차지했다”고 평가했다.<sup>91)</sup> 시린스키-시흐마토프는 자신이 천거된 배경을 “모든 경우에 법을 지침으로

87) Там же.

88) Лемке, Указ. соч., с. 200-202.

89) Л.В. Дубельт, “Заметк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с. 156-164.

90) “Письмо Ф. Булгарина ко А.В. Никитенко от 4 декабря 1848 г.”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 (1900), с. 182.

91) Анненков, Указ. соч., с. 500.

삼았기 때문에 교육대신 직에 오를 수 있었다. 나에게는 스스로의 의지도, 생각도 없다. 나는 오직 군주 의지에 대한 맹목적인 도구일 뿐이다”라고 밝혔다.<sup>92)</sup> 니키펀코도 “그는 배우지 못한 천박한 인간이다. 나는 내 공직 인생에서 이직껏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혹평했다.<sup>93)</sup>

안넨코프는 페테르부르크 검열위원회를 이끈 무신-푸시킨(М.Н. Мусин-Пушкин)에 대해서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회상했다.<sup>94)</sup> 시린스키-시흐마토프처럼 지식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무신-푸시킨은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인물들을 검열관직에 앉혔다. 이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검열위원회는 다수의 무지몽매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sup>95)</sup>

1849-1855년 나지모프(В.А. Назимов)는 모스크바교육관구와 검열위원회를 관리했다. 그는 선량했지만 단순하고 교양이 부족한 인물이었다.<sup>96)</sup> 엘라긴(Н.В. Елагин)은 검열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시흐마토프의 마구간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그의 활동에 대해 당대의 작가이자 계몽운동가 추미코프(А.А. Чумиков)는 “엘라진이 검열한 신분에는 독자들이 읽을거리가 전혀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sup>97)</sup> 카잔의 지주 아흐마토프(Ахматов)는 “상관이 그에게 진 빚 덕분에” 검열관이 될 수 있었다. 그는 한 산수 교과서의 출판을 중지시켰는데, 문제가 된 것은 어떤 일련의 점들이 숫자들 사이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지한 검열관은 그 점들에 저자의 불온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했던 것이다.<sup>98)</sup>

1848-1849년 제3부에 보낸 불가린의 보고서는 당대 다른 작가들의 관찰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현재의 검열관들을 보라. 모두가 어중이떠중이들이다. <...> 크릴로프(А.А. Крылов)<sup>99)</sup>는 아둔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머저리는 검열관 프레이간(А.В. Фрейган)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무식하며 러시아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은 지워버린다.

92) Чичерин, Указ. соч., с. 392.

93) Никитенко, Указ. соч., с. 296-298.

94) Анненков, Указ. соч., с. 494.

95) О.А. Пржецлавский, “Воспоминание,”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9 (1875), с. 143.

96) Е.М. феокистов, *За кулисами политики и литературы* (М., 1929), с. 88.

97) А.А. Чумиков, “Мои цензурные мьгарств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9 (1899), с. 622; В.Р. Зотов, “Петербург в 40-х годах,”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 5 (1890), с. 308.

98) Там же, с. 415.

99) 크릴로프는 페테르부르크 검열위원회 소속 검열관이었다. 안넨코프에 따르면 그는 저자의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원저의 개성을 말살한 인물이다. Анненков, Указ. соч., с. 498.

그는 베네치아 영사인 형의 비호로 검열관이 되었다.”<sup>100)</sup> 니키펜코의 전언에 따르면 이 검열관은 자유를 위해 싸우거나, 공화정 사상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했다.<sup>101)</sup>

교육대신에서부터 일선의 검열관들까지 국가검열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그 활동을 살핀 결과 니키펜코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군주에게 최악의 상황은 그 주위에 계몽된 인물들이 결여되어 있을 때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군주가 승인한 모든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sup>102)</sup>

## V. 결론

1848년 유럽혁명은 그 결과의 성패를 떠나 유럽 각지에 혁명사상, 입헌운동, 민족주의 등을 자극했다. 니콜라이 1세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러시아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상과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는 검열체제의 개편은 비상검열위원회의 설립과 검열관의 자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경향 속에 이루어졌다.

비상검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검열체제는 교육부 관장 하의 기존 검열기관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른바 ‘4월2일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확립되었다. 비상검열위원회는 황제직속의 비공개적 상시 감독기관으로 자체적인 정책결정권이나 집행권은 보유하지 않았다. 이 특별 기구는 니콜라이 1세의 ‘눈과 귀’로서 모든 출판물과 검열활동을 검열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황제에게 보고했다. 보고된 사안은 황제의 최종인가를 거친 후 제3부와 관련부처를 통해 집행되었다. 따라서 니콜라이 1세 통치 말기 검열체제의 변화는 기존의 사전검열제와 ‘검열에 대한 검열’의 사후징벌적 검열제가 병행되는 양상을 띠었다는데 있다.

새로운 검열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또 다른 주요 과제로 검열관의 자질 문제가

100) Ф.В. Булгарин, “Записка о цензуре и коммунизме в Росси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с. 56.

101) Никитенко, Указ. соч., с. 354-355.

102) Там же, с. 250.

대두되었다. 관련 자료의 검토 결과, 니콜라이 1세는 기존 검열관들의 검열행태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고, 능력 있는 검열관의 유입과 직업검열관 제도의 정착을 통해 검열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열관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치우가 개선됨에 따라 당대의 유명 작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직업검열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검열업무에 필요한 지적능력이 결여되거나 관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물들도 다수 새로운 검열체제 속에 포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열관의 자질 향상으로 당시의 검열체제가 ‘개선’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선’의 의미를 전제정부의 시각에서 ‘검열의 보수화’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열관 전반의 업무능력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니콜라이 1세가 구상한 ‘검열의 정상화’를 위한 검열체제 개편의 지향점은 통치 말기 검열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검열에 대한 검열’을 통해 검열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검열조직의 내부적 기강을 확립하고 둘째, 사전·사후 이중 검열을 통해 당대의 유명 작가, 언론인, 학자들에 대한 검열과 처벌을 상징적 사례로 유포함으로써 상시적이고 엄밀한 국가검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출판계에 상기시키는 데 있었다. 궁극적으로 모든 저작이 검열이 규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만드는 ‘자기 검열의 일상화’ 즉, ‘검열의 내면화’를 지향했던 것이다. 니콜라이 1세가 천명했던 ‘검열의 정상화’는 결국 ‘검열의 반동화’에 다름 아니다. 동시대인이 검열로 인해 감내했을 국가로부터의 위협과 공포의 강도를 이전 시대와 비교해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 1세 말기의 7여 년을 ‘검열테러의 시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니콜라이 1세가 의도한 바대로 새로운 검열체제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차단하는 제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혁명의 파고를 막고 전제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제 관계에서 러시아의 낙후성이 지속되게 만들었으며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은 결국 크림전쟁에서의 패배와 니콜라이 1세 사망을 계기로 러시아를 대개혁의 노정에 서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 참고문헌

- ГАРФ(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 1. Оп. 11.  
Ф. 109. 1 эксп. Оп. 23, 24, 26.
- Анненков, П.В. “Две зимы в провинции и в деревне.” *Анненков П.В. Литератур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М., 1989.
- Басаргин, Н.В. *Воспоминания, рассказы, статьи.* Иркутск, 1988.
- Беккер, Г. “Оппози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в 1848 г. (по донесениям прус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 1 (1968).
- Блохин, В.Ф. *История в портрета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Брянск. 1995.
- Бриксман, М.Ф. “И. Тютчев в Комитете Цензуры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 19/21 (1935).
- Булгарин, Ф.В. “Записка о цензуре и коммунизме в Росси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 Валуев, П.В. “Думы русского.”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5 (1891).
- Веселовский, К.С. “Отголоски старой памяти.”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0 (1899).
- Герцен, А.И. *Полн. собр. соч.* В 30 т. том. 7. М., 1958.  
“Герцен и Комитет Бутурлина.”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7-9 (1918).
- Гиллельсон, М.И. *П.А. Вяземский.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Л., 1969.
- Гордин, Я. *Николай I без ретуши.* СПб., 2013.
- Добровольский, Л.М. *Запрещённая книга в России. 1825-1904.* М., 1962.
- Дубельт, Л.В. “Заметк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 Ерошкин, Н.П. *Крепостнические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ституты.* М., 1981.
- Жирков, Г.В. *История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19-20 вв.* М., 2001.

- “Записка ст. - секретаря М.А. Корфа наследнику цесаревичу.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3 (1913).
- Зотов, В.Р. “Петербург в 40-х годах.”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 5 (1890).
- Истор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о цензуре в России*. СПб., 1862.
- Ключевский, В.О.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Полный Курс Лекций*. том. 3. М., 1993.
- Колпакиди, А., Север, А. *Спецслужб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2010.
- Корф, М.А. “Император Николай Первый в совещательных собраниях.” *Сб. РИО*. том. 98. 1896.
- Корф, М.А. “Записки.”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3 (1900).
- Корф, М.А. “Размышления 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и цензуры.”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особой комиссией, высочайше учреждённой 2 ноября для пересмотра действующих постановлений о цензуре и печати*. Ч. 1. СПб., 1870.
- Кочаков Б.М. *Русск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й документ 19-20 вв.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М., Л., 1937.
- Кошман, Л.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9-20 вв*. М., 2003.
- Кукольник, Н.В.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том. 45. № 7 (1891).
- Левандовский, А.А. *Ключ к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а*. М., 1995.
- Ледодаев, В.Ю. “Князь Петр Андреевич Вяземский о цензуре и литературной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8. История. № 5 (1997).
- Лемке, М.К. “Запрещённые и сваренные книги.” *Книга и революция*. № 5 (1920).
- Лемке, М.К. *Николаевские жандармы и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826-1855*. СПб., 1909.
- Лемке М.К.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и журналистики XIX столетия*. СПб., 1904.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цензуры в России.”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4 (1913).
- “Материалы, собранные комиссией дл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печати. Публикация В. Биншток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4 (1897).
- Минаева, О.Д. “Предложение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12 марта 1848 г.” *Русская журналистика в документах: История надзора*. М., 2003.
- Мироненко, С.В. “Николай I.” *Российские самодержцы*. М., 1994.
- Моряков, В.И.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М., 2005.
- Нифонтов, А.С. *1848 год в Росси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40-х годов*. М., 1931.
- Оксман, Ю.Г. “Меры николаевской цензуры против Фурьеризма и коммунизма.” *Голос минувшего*. № 5/6 (1917).
- Перкаль, М.К. “Проект изменения цензурного устава.”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Вып. 16. Саратов, 1996.
- Пигарев К.Ф. “Тютчев и проблем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 19/21 (1935).
- “Письмо Ф. Булгарина ко А.В. Никитенко от 4 декабря 1848 г.”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1 (1900).
- Пржецлавский, О.А. “Воспоминание.”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9 (1875).
- “Россия и Европа в настоящую минуту.”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том. 59. Отд. 3 (1848).
- Ружицкая, И.В. “Корф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оссии.”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 2 (1998).
- Сборник постановл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о цензуре*. СПб., 1862.
- Скабичевский, А.М.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1700-1863)*. СПб., 1903.
- Тютчева, А.Ф. *При дворе двух императоров. Воспоминания. Дневник*. Тула, 1990.

- Федоров, В.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19-начало 20 вв.* М., 1998.
- Феокистов, Е.М. *За кулисами политики и литературы.* М., 1929.
- Чичерин, Б.Н. *Воспоминания. Русское общество в 40-х-50-х гг. 19 в.* М., 1991.
- Чумиков, А.А. “Мои цензурные мытарств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9 (1899).
- Шильдер Н.К. *Император Николай I.* том. 2. Приложения. СПб., 1903.
- Шумов, С., Андреев, А. *История спецслужб России.* М., 2004.
- Энгельгардт, Н.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цензуры (1703-1903).* СПб., 1904.
- Choldin, M. T. *A Fence around the Empire. Russian Censorship of Western Ideas under the Tsar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 Daly, J. W. *Autocracy under Siege.*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8.
- Delouche, Frédéric (ed.). *Histoire de l'Europe.* 윤승준 역, 서울: 까치, 2005.
- Gay, P., Webb, R. K. *Morden Europe Since 1815.* 박무성 역. 서울: 법문사, 1988.
- Lawrence J. *A History of Russia.* New York: Meridian, 1993.
- Mommsen, W. J. 1848, *Die Ungewollte Revolution.* 최호근 역, 서울: 푸른역사, 2006.
- Riasanovsky, N. V., Steinberg, M.D. *A History of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Ruud, Ch. A. *Fighting Words: Imperial Censorship and the Russian Press, 1804-19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 Abstract

### The Russian Censorship in the Era of Censorship Terror: Focused on Emergency Censorship Committee

Yong-Hwan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censorship situation for seven years (1848-1855) in the later part of the rulership of Nicholas I. During the Nicholas I era, all the issues related to censorship were decide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Tsar. Nicholas I became the supreme censor, and the 'censor of censors'. In fact, during the period that this study deals with a strict censorship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extent of the censorship was so great that the era became known as the 'era of censorship terror'. The strengthening of the censorship system was caused by revolutionary events which occurred in the late 1840s, and was established because of two important trends,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censors and the founding of the special censorship committee. Apart from routine of official censorship, undercover and unofficial censorship that was free of any regulations connected to law oppressed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Buturlin Committee which was founded on April 2nd, 1848. This committe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censorship system until Nicholas I death in 1855. The advent of the special censorship committee revealed a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pre-censorship system and punitive post-censorship system of 'censorship on censorship' co-existed. Publications that passed censorship under Education Department were then expect to pass the censorship of the special censorship committee. As such, 'censorship on censorship' affected not only

the speech and publication field, but also the censors in the existing censorship system, strengthening censorship standards. The cyclic structure built by Nicholas I played a pivotal role in bank block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bolstered the backwardness of Russia in various social relations, and also caused conflicts with contemporary progressive intellectuals. Ultimately, the censorship system led to a great reform over the whole Russian society which was triggered by the defeat in the Crimean War and death of Nicholas I.

